

#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을”

문화예술계, 입장문... “사죄, 재발방지·사회적 기억·피해자 회복 약속할 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1인 시위.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법재판소(현재)가 최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사회적 기억, 피해자 회복을 약속할 때"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여전히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재도 예술지원기관과 예술현장의 파괴된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도 있다. 직장을 잃은 공공기관 직원이 있으며, 트라우마로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예술가들도 있다.

현재도 이런 관점을 내리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끝났지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선안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후속 조치 중 제의 과제였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처음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했을 뿐이다.

이양구 국작가는 최근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모든 피해자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 정부의 수반으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실 인정과 사과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대한민국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지난 8일부터 광화문 극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주말 제외)를 벌이고 있다. 수직적 관료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원의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남원시는 제10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 기념물 제145호에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청계리 고분군은 시루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 고분이다. 봉분의 크기는 길이 31m, 너비는 약 20m, 높이는 5m 내외로 현재까지 호남지역에 발굴된 가야계 고총 중에서는 가장 이르고 가장 규모가 큰 고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학술지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 10여기의 고분을 확인했고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청계리 고분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고분의 구조와 축조방법, 호남지역에서 최초 발견된 '수레바퀴 장식 토기편'을 비롯한 다수의 함안 아라카야계 토기와



남원의 '청계리 고분군'

일본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나무 빗 등이 출토됐다. 또 이영분지 일대 고대 정치조직의 실체와 변화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도 확보했다.

이원주 시장은 "청계리 고분군 도기념물 지정은 이영분지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남원 청계리 고분군, 전북도 지정문화재 등록

호남지역 최대 가야 고총

남원시의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남원시는 제10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결과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 기념물 제145호에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청계리 고분군은 시루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 고분이다. 봉분의 크기는 길이 31m, 너비는 약 20m, 높이는 5m 내외로 현재까지 호남지역에 발굴된 가야계 고총 중에서는 가장 이르고 가장 규모가 큰 고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학술지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 10여기의 고분을 확인했고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청계리 고분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고분의 구조와 축조방법, 호남지역에서 최초 발견된 '수레바퀴 장식 토기편'을 비롯한 다수의 함안 아라카야계 토기와

## 군산대 박물관, '군산의 기억실' 신규 개관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28일부터 새로운 상설 전시공간인 '군산의 기억실'을 개관한다. 이번 개관은 군산대학교가 진행 중인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인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박물관 만들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신규 개관하는 '군산의 기억실'은 사진작가 신철균 씨(1923~)가 1964년 흑백 카메라로 월명산 정상에서 촬영한 군산 전경을 담은 17m 길이의 대작 '군산의 기억, 1964'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군산의 기억, 1964'는 국내 유일의 1960년대 군산 전경 사진이다. 군산 지역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 군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당시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주고, 현대대들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군산의 기억, 1964'의 촬영장소를 찾아 이를 그대로 재현한 '군산의 기억, 2020'이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비교 영상을 통해 색다른 군산의 기억을 만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관람 시간 내 별첨 체크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2021년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대한민국 국기(國旗)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2021년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15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 학교 별 최대 10학급을 대상으로 호신술과 자기방어, 겨루기 격파 품새, 태권도 기본 기술 등을 교육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도사별 파견'과 '태권도복 및 교육 기자재' 등 태권도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https://www.tf.or.kr/tf/contents/tf0501.do?sch>

M=view&page=1&viewCount=10&id=2093&schBdc=code=&schGroupCode=)을 참고하여 이메일(education@t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은 2020년에 15개교 134학급 총 3,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전국 43개 학교 414학급 총 1만1,000여명에게 태권도 수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태권도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태권도 수업 진행은 코로나19 관련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 꽃심 두 번째 이야기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

## 전라도 인정과 풍류에 흠뻑 취해볼까?

극단 모레노는 29일 창작소극장에서 전주 꽃심 두 번째 이야기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라는 연극을 비대면 공연한다.

최명희 작가는 그의 역사 '혼불'에서 전주는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했다.

극단 모레노는 '꽃심'이 전주의 정신, 더 나아가 한국의 꽃심이라는 '꽃심 전주' 이야기를 해마다 엮어서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전주에 전설처럼 전해오는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를 연극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

연극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는 정감 넘치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걸관진 욕을 통해 전주의 넉넉한 인심, 그리고 맛과 멋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다.

류병희 작가는 "2020년 12월의 끝자락에 코로나19로 한없이 위축된 도민들에게 전주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사람 사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겠다"는 뜻으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작품 속에는 욕쟁이 할매와 이모의 삶 속

극단 모레노, 오늘 창작소극장은 몇 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야기, 60년대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온 이야기, 저물어 가는 12월 단골 손님 시인과 욕쟁이 할매가 펼치는 이야기가 있다.

극단 모레노 연출측 대표는 "이번 연극 속에는 서민들의 아픈 삶이 애뜻이 담겨 있으며, 그럼에도 희망과 용기를 피워내고 있다"면서 "우리 고장 전주의 맛과 멋을 지키

는 '꽃심' 같은 이야기라며 시민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한편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 공연은 전문배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참여한다.

송일섭(전북재능기부협회 회장)을 비롯해 편성숙, 원숙, 김희진, 유현진, 임지연, 김민선 등이 출연하는 '전주의 꽃심 이야기' 두 번째 '욕쟁이 할매와 전주막걸리'에서 전편에 흐르는 전라도의 맛과 멋, 인정과 풍류에 흠뻑 취해보자.

/유호상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